



살고 싶은 마을로... 우암동 르네상스

한국 근현대사의 애환이 곳곳에 밴 우암동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의 각종 재생사업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점차 '사람 살기 좋은 새마을'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소막마을 생활인프라 확 바뀐다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

새뜰마을사업지 선정... 2019년까지 70억원 들여 환경개선 문화복합형사업도 착착 진행, 내년 소막복원·골목 정비 등

우암동 소막마을(189-1104번지)을 중심으로 그 일원이 정부의 2016년 새뜰마을 사업대상지로 최근 선정됐다. 이로써 2019년까지 사업비 70억원(국비 50억원, 시비 6억원, 구비 14억원)이 투입돼 노후 불량주택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생활·위생 인프라 등이 크게 개선된다. 특히 단

순 사업비를 들여 하드웨어적 환경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소득 창출 등 주민들의 자활의 지도 높일 계획이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나 쪽방촌, 공단·공장 배후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개선하는 도시

재생사업이다. 지난해 처음 사업이 시작됐고 올해는 전국에서 총 22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남구는 올해 상반기 중에 새뜰마을사업계획을 재검비하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내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막마을 일원은 이번 새뜰마을사

업과는 별개로 다양한 지역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난해 초 부산시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복합형주거환경관리사업에 선정돼 시·구비 31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방치된 소막사를 복원해 전시공간·주민 커뮤니티센터로 꾸민다. 또 공영주차장 건립, 골목길 정비, 소공원 조성 등도 병행한다. 이외에도 소막마을 일원 2만702㎡가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함께 추진하는 빈집 범죄예방 시경협력 시범사업'에 지난달 지정돼 올 6월까지 CCTV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공제가 일부를 절감해 안전한 마을로 바뀐다.



■우암동 소막마을이란

새뜰마을·문화복합형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우암동 189-1104번지 일원은 흔히 '소막마을'로 잘 알려져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소 송출과 검역을 위해 일대에 대규모 소 막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막 한 동의 크기는 길이 42m, 폭 9m의 목조건물로 한 동의 최대 소 120마리를 수용할 수 있었고 총 19개동이 건립됐다. 해방이 되면서 소막은 일본과 중국에서 건너온 귀환동포들이 차지했다. 이후 6·25때는 피난민 수용소로도 활용됐다.

근현대사 100년 흔적 마을 곳곳 역사 현장

소막 내부를 거쳐 등으로 임시칸막이를 전 뒤 한 동의 20가구가 거주했다. 이후 1963년 거주민들이 정부로부터 불하를 받은 뒤 거적을 얹었고 목재와 흙벽으로 견고한 칸막이를 세워 소막 한 동을 몇 개의 주택으로 쪼개 살았다. 목재공장 등이 번성하던 1960~80년대 인구 급증으로 호황을 맞지만 90년대 들어서 기업들이 도산·이전 등으로 하나둘 빠져나가자 마을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으면서 현재 부산의 대표적 낙후지역이 되었다.

우암동 189번지 일원의 소막마을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등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가 녹아있는 역사의 현장이다. 사진은 일부 원형이 남아 있는 소막을 스케치한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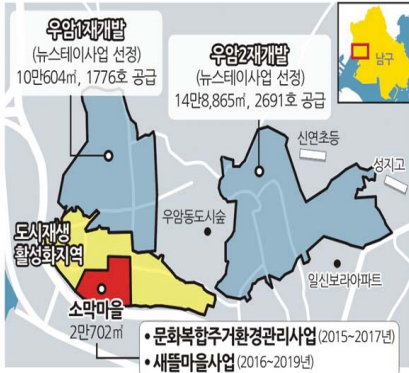
〈기업형 임대주택〉 우암1·2구역 뉴스테이 연계 개발 10년 묵은 정비사업 탄력 받는다

임대가구 4467채 공급 기대

감만1구역은 한토신과 MOU

우암1구역과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6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우암1구역은 1,776호,

우암2구역은 2691호 등 우암동 지역에 총 4467가구의 기업형 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우암1구역은 우암2동주민센터 주변 10만604㎡이고 우암2구역은 우암초등학교 주변 14만8,865㎡로 각각 2004년, 2006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문제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뉴스테이(new stay)는 최소 8년(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매년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세는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하고 한국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가 운영·관리한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나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어 정비사업을 정상화시키고 도심 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효과적이다.

한편 감만1구역은 이번 국토부 공모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대신 한국토지신탁(이하 한토신)과 뉴스테이 사업자 양해각서를 이달 말 체결할 계획이라고 조합측이 알려졌다. 김경래 감만1구역 재개발조합장은 "오는 6월에 있을 2차 공모 발표에 감만1구역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한토신이 이례적으로 사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UN 세계수산대학, 남구 유치 '청신호'

최종 후보지로 부경대 선정... FAO 통과되면 2018년 대연캠퍼스 내 개교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산전문가를 양성할 세계수산대학(WFU·World fisheries university)이 2018년 남구 대연동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경대학교가 UN식량농업기구(FAO) 산하 세계수산대학의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서 제주와 충남을 제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부경대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 및 재정·부지·시설 지원계획, 수산교육 및 R&D인프라, 국제협력역량, 입지환경 등에서 다른 후보지를 앞선 것을 알려졌다.

남은 절차는 오는 7월 FAO 수산위원회 및 12월 이사회 통과와 내년 7월 FAO 총회에서 대학 설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이후 2018년 9월 대연캠퍼스 내에 개교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부경대는 오래전부터 전담조직을 꾸려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맨 처음 제안한데다 현재로서는 단독 후보지여서 FAO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경대는 지난 2011년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기획하고 부산시와 공동으로 극비리

에 물밑 전략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 덕분에 일본 등 인접 국가는 물론 국내 타 도시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다. 부산시와 부경대는 2012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용역으로 세계수산대학 설립방안을 도출해 해양수산부에 유치를 제안했다. 이어 FAO 및 기획재정부 협의, 정부 재정 보증서 및 사업제안서 FAO 제출, FAO와 우리나라 간 상호협력의향서 체결 등의 과

정을 거쳤다. 부산시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연간 35억 원의 운영비와 100억 원 상당의 건축비, 대학발전기금 50억 원 등을 지원하고 부경대는 세계수산대학 건립부지로 대연캠퍼스 내 6,000㎡를 제공하고 대학 실험·실습기자재, 연구시설 및 실습선 등을 지원한다.

경제효과 1200억원... 1300명 취업 유발

■세계수산대학이란

세계수산대학은 수산분야 최초로 설립되는 UN 산하 대학이다. UN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수산교육과 기술훈련, 정책인 및 관리능력 개발 등을 맡는다. 개도국의 수산분야 공무원 및 연구자를 중심으로 양식기술, 수산자원관리, 수산사회

과학 등 3개 학부에서 연간 석·박사 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스웨덴 말뚝시에 소재한 세계 해사대학에 이어 해양수산 분야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는 1,200억원, 취업유발효과 1,300명으로 예측된다.

주민숙원 대연1동 주민센터 완공

3월 14일부터 신축 동사서 업무

대표적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대연1동 신축 주민센터가 완공돼 오는 3월 14일(월)부터 행정업무를 본다. 지상 5층(연면적 1,135㎡) 신축 주민센터는 도시철도2호선 대연역과 유엔교차로 중간 지점에 건립됐다. 필로터 구조로 1층은 주차장, 2층 민원실, 3층 동대분부, 소회의실 4층은 씬 지도서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 대회의실로 사용한다. 5층은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신설된다.

대연1동 주민센터 신축은 지난 2013년 7월 정부의 소규모 행정동 통합 조치에 따라 대연1동과 대연2동이 통합되면서부터 논의가 진행됐다. 그후 2014년 11월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 지난해 8월 공사에 들어갔다.



주소 : 남구 유엔평화로 24(대연동 984-20번지)

지난 1974년 지어져 40년이 넘는 현 대연1동 주민센터는 오는 4·13국회의원 선거 때 대연1동 제3투표소로 사용한 뒤 매각 등 용도 폐지할 방침이다. ☎607-6601



대보름 달집태우기
묵은 때도 '활활'

'타닥타닥' 달집 타들어가는 소리 만으로도 지난 한 해 묵은 때와 액운이 시뻘건 불길 속으로 말끔히 사라진다. 지난 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열린 2016 백운포달맞이축제가 주민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작은 사진은 시진행사로 진행된 권원태 출타기 명인의 출타기 공연.

이웃이 이웃 돕는 '희망의 연결고리' 결실

작년 후원자 4174명 동참 성금 9182만원 모아 관내 66세대 전달

이웃이 이웃을 도와 위기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남구의 '희망의 연결고리'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9182만원의 성금을 모아 남구 내 위기가정 66세대에 전달됐다. 남구 주민을 포함해 부산 시민 4174명이 동참했다.

'희망의 연결고리' 사업은 2013년 2월에

처음 시작됐다. 위기가정의 지원과 자립 기회 확대를 관청이 아닌 다양한 민간자원을 발굴·연계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은 우선 구청이 사제관리대상자와 긴급지원세대 등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이어서 언론매체와 복지재단을 통해 이들 이웃의 사연을 소개해 주민, 단체, 기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후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기가정의 사연은 본지의 '이웃에 온정'과 부산일보의 '사랑의 징검다리' 지난해부터 KBS라디오 '희망충전 대한민국' 등을 통해 부산 전역에 소개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모두가 따뜻한 행복도시 남구를 만드는 희망의 연결고리 사업이 자리를 잡았다"며 "올해에도 주민들의 맑은 동심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607-4861

로 이어졌다. 미 해군사령부의 남구 이전은 주한미군 용산기지의 반환에 따른 조치다. 용산기지에 있던 주한미군 지휘부가 운데 해군사령부가 처음 이전했다. 기존 용산기지 내 지휘·지원 병력과 장비는 지난 연말 부산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해작사로 지휘부가 옮겨옴에 따라 한미 해군 지휘부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며 한미 해군의 연합협조체계가 구축돼 양국 해군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미 해군사령부 남구로 옮겨와

해작사 내 신청사 준공... 한미 해군 협조체제 강화

서울 용산기지에 주둔하던 미 해군사령부(CNFK·사령관 윌리엄 번 준장)가 남구로 옮겨왔다. 미 해군사령부는 지난 19일

백운포 해군작전사령부 내에 신청사 준공식을 갖고 본격 임무에 들어갔다. 청사는 9040㎡부지에 지하1층·지상2층 독립 건물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 남구신문 기사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